

‘뉴 민주당 선언’ 초안 작성한 김효석 의원

“민주, 부자·대기업 적대시 안돼”

“이제 민주당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의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으로 ‘뉴 민주당 선언’ 초안을 통해 민주당의 ‘제3의 길’을 제시한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은 1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이념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하며 진화하지 않고는 시대를 이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당 내외 인사들을 초빙, 치열한 논의를 거쳐 ‘뉴민주당 선언’을 마련하고 당의 정체



소중한 가치를 간직하는 것은 물론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한 부자와 대기업을 적대시 않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권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한나라당과는 거리가 멀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언제쯤 제시되는가.

▲오는 5월이면 정책집이 만들어진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해밀튼 프로젝트처럼 뉴 민주당 선언은 민주당의 추후 정책적 좌표가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난 정

“무능한 진보 틀 깨고 시대 맞는 진화 필요”

“분배 강조하면 필패 성장에 중점 두겠다”

성에 일대 변혁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내세웠던 ‘중산층과 서민의 벗’에서 나아가 전 계층을 포용하는 것은 물론 분배에 실패한 무게 중심을 성장 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온 김효석 의원의 일문 일답.

-뉴 민주당 선언의 배경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그만큼 둔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행착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아직 과감한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 민주당 선언은 이러한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변화없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한 것이다.

-뉴 민주당 선언은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정체성과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념 정당이 아니다. 대중 정당이다. 정체성으로는 진보 쪽에 가까운 대중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원’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다.

-“중원”을 확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중원이라는 것은 이념과 계층, 지역, 성(性)을 주도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념적으로는 중도, 계층으로는 중산층, 지역으로는 충청, 연령으로는 30~40대 여성 및 인터넷 세대를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중원 세력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서는 집권할 수 없다.

이를 답을 수 있는 그릇이 뉴 민주당 선언이다.

-당의 이념적 좌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민주평화개혁세력’이라는

권에서의 세금 폭탄 등 일부 잘못된 세계 보완에 나서는 것은 물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제시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성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성장 만능주의다.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성장은 질 좋은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여기에는 성장의 과실을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분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당장 추경 편성에서부터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는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 파트너로 도울 것은 돕겠다. 여권이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추경규모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술선수법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세를 늦춰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베이징 도착한 北 김영일 총리

김영일 북한 총리(가운데)가 1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 4박 5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총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산둥성 지난시를 방문해 농업관련 시설 등을 시찰했으며 18일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 후 원자비호 중국 총리 등 지도부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예멘 참사는 알카에다 자폭테러”

테러범 신원 확인...관광객 12명 귀국

한국인 여행객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예멘 자살폭탄테러는 알카에다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뉴스 웹사이트 ‘뉴스 예멘’은 “현지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테러범의 신분증을

발견했으며 테러범의 이름은 ‘알리 모센 알-아마드(Ali Mohsen al-Ahmad)’이다”고 17일 보도했다.

보안 관리들은 알-아마드가 1990년 예멘 수도 사나의 알-살람(평화) 지구에서 태어났으며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예멘 지부 조직원이라고 말했다.

뉴스 예멘은 보안 관리들을 인용해 테러

범이 폭발물 벨트를 터뜨리기 직전에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또 테러범이 자폭테러를 저지르기에 아이들을 테러현장에서 떨어져 있게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이날 예멘 내무부 1차 조사결과 “계획적인 자살폭탄테러 행위”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관광객 일행 18명 중 사망자 4명과 여행사 관계자 2명을 제외하고 부상자 2명을 포함한 12명은 두바이를 거쳐 에미리트항공 EK322편으로 이날 오후 3시 54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고종황제 손때 묻은 현존 유일 ‘실무용 국새’

美 교포에 사들인 국새는

지금까지 단 한 점도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된 조선왕조 임금의 친서에 사용된 실무용 국새(國璽)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고종황제가 1903년 이후 외교 친서에 사용한 황제어새(皇帝御璽)다. 조선왕조 500년 간 수많은 국새가 제작됐지만, 실제 사용한 기록이 확인된 국새 실물을 찾은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국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해온 일본강점기 유리 원관 사진으로만 존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한 60대 재미교포가 “내가 고종이 쓰던 국새를 소장하고 있다. 이를 구입하겠느냐”고 국립고궁박물관 측에 문의해왔고 박물관측은 지난해 12월 국새를 재미교포로부터 구입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유물 구입 과정과 가격,

소장자 신분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60세가 넘는 미국 거주 개인 소장가가 먼저 제의해왔고, 일반적인 추측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고 전했다.

500년간 지속된 조선왕조에는 모두 27명에 이르는 임금이 있었으며 이들 임금은 이번 고종황제의 국새처럼 실무용 도장을 무수히 제작해 친서 등에 사용했을 테지만 그런 실물은 남아있지 않다. /연합뉴스

합력을 많이 시킨 학원만이 공부원칙적의 Know-How를 안다!!

수석임직

9급공무원 이론반 / 9급문제풀이

5일특집기억특강

한빛고시학원

방수

IPALG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

[주]이바지종합기술연구소

06-2511-0444

국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100% 합격 보장

계좌제/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

가족사랑 간호전문학원

945-7125-7